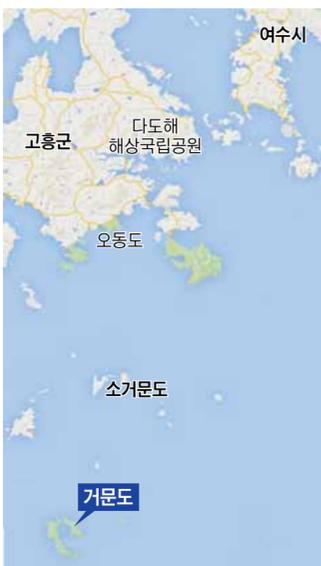


# 구한말 세계 열강 각축장... 접근성 열악해 발전 뒤처져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여수편 - 거문도



거문도의 역사와 그 가치를 말해주는 영국인묘지. 구한말 영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세계 열강들은 모두 거문도를 주목하고, 일본과 중국과의 연결기지로 삼으려했다.

동도·서도·고도 3개섬으로 구성  
미·영·중·일 해양거점 삼으려 장악  
영국인 묘지·해양케이블 등 흔적 남아

여수서 배로 2시간...하루 두번 운항  
4인 가족 왕복 배삿 28만원 '부담'  
이달 20일 동·서도 '거문교' 개통

전남의 섬 관광의 메카를 꼽으려면 신안의 흑산도·홍도, 여수의 거문도다. 물에서 먼 외해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 오랜기간 간직해온 독특한 섬 문화, 절경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자연자원 등 '매력덩어리'임에 틀림없다. 특히 거문도는 단순한 섬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1800년대 후반 대표적인 서구열강인 영국과 아시아 재패를 꿈꿨던 일본이 눈독을 들였던 동아시아 해양거점이었다. 이들 강대국들은 거문도를 장악한 뒤 중국 상해와 대련, 일본 나가사키현의 항구도시 사세보(佐世保) 등을 잇는 케이블 매설에 전력을 기울였다. 거문도를 통해 중국과 일본, 한국의 바다를 차지하겠다는 '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100여년 전, 높은 가치로 '대접' 받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거문도는 선박 1편이 하루 두 번 오가는 접근성이 열악한 그저 아름다운 섬으로 전락해버렸다. 섬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마저 상실하게 한 셈이다. 광주에서 거문도를 가기 위해 지난 8월 10일 새벽 5시에 나가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오전 7시 40분 줄리아아쿠아호를 탔다. 배삿은 3만6100원. 4인 가족이 왕복하려면 28만여원이 든다. 여기에 제대로 구경하기도 힘든 백도 유람선까지 탄다면

1인당 2만9000원이 추가된다. 섬 여행은 정해진 선박 시간을 맞춰야하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이 섬 발전의 전제조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얀 면티를 입은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좁은 통로로 몰려 들었다. 7박 8일간 거문도, 통영, 진해, 부산 등 남해안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들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5만원의 참가비에 낸 부경대 2학년 백산염(23)씨는 "하루 전에 만났는데, 몇 년 사귀 친구 같다"고 미소지었다. 삼삼오오 자리한 청춘들의 셀카 삼매경을 구경하느라 여객선의 출발도 눈치채지 못했다. 여객선은 장군도와 돌산대교를 지나 40여 분만에 고흥 나로도에 도착했다. 원래 거문도는 고흥에 보다 가깝다. 그런데 거문도는 여수시에 속해 있다. 그 연유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전남도가 폐년 도세일반(道勢一辨)에서 살펴볼 수 있다. 1896년 조선은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 완도군, 돌산군, 지도군을 증설하는데, 여기서 흥양(지금의 고흥), 순천, 광양, 무안 등 4개 군에 속해있던 도서를 돌산군에 편입시켰다. 돌산군은 1914년 다시 해체돼 여수·고흥·광양으로 각각 나눠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문도가 속한 삼산면이 여수에 속하면서 거문도는 여수시 행정구역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된 것이다. 101년 전의 일이다. 참고로 1925년 당시 전남도의 유인도는 370곳, 무인도는 1377곳 등이었다. 지난 2013년 전남도 통계에서는 유인도가 296곳, 무인도는 1923곳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90년만에 유인도가 74곳이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로도를 지나 오전 9시 여객선은 손죽도 선착장에 닿았다. 서둘러 짐을 옮기는 주민, 관광객 사 이로 동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전남 남해안의 거의 모든 섬이 충무공 이순신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손죽도 선착장에는 충무공이 아닌 이대원 장군 동상이다. 이대원 장군은 임진



1885년부터 2년간 거문도를 불법점거한 영국은 중국 상해와 해양케이블을 연결했다. 끊어진 해양케이블.

왜란 당시 22세의 나이로 녹도만호로 참전해 손죽도에서 왜구와 맞서다 전사했으며, 2001년 섬 주민, 후손 등이 힘을 합쳐 동상을 건립했다고 한다. 섬 선착장 앞 동상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이었다. 25분여 뒤 초도를 지나 거문도 동도

에 도착한 것이 9시 55분이었다. 거문도는 서도와 동도 그리고 고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된다. 거문도여객선터미널이 있는 고도는 원래 거주민이 없었다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이후 고도에 삼산면사무소, 우체국, 거문초교, 어판장, 수협 등이 자리하면서 지금까지도 거문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도와 서도는 일방통행인 삼호교로 연결돼 있으나 동도와 서도, 고도는 여전히 선박편으로 오가야 한다. 여객선은 동도 선착장에 먼저 들른 후 고도에 자리한 오전 10시 10분 여객선터미널에 닿았다. 여수여객선터미널을 출발한 지 2시간 30분만이다. 동도와 서도를 잇는 거문교는 오는 9월 20일 준공·개통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형화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섬 사람 삼산면사무소 염동필 면장 "거문도는 내 운명...발전계획 수립하겠다"

거문도여객선터미널에서 가장 먼저 취재진을 반겨준 사람은 8월 6일자로 삼산면사무소 면장으로 발령받아 10일 첫 출근한 염동필(59·5급) 면장이었다. 그는 여수와 졸업 후 공직에 진출해 여수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사무관 승진의 '꿈'을 이룬 그는 공직의 마지막 1년을 여수에서 가장 먼 거문도에서 보내게 됐다. 염 면장은 "개인적으로 거문도를 너무 좋아해 운명처럼 느껴졌다"며 "발령을 받자마자 집을 꾸러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9일 섬에 들어왔는데, 첫 손님을 맞게 됐다"고 반겨줬다. 20년 넘게 거문도를 찾았다는 그는 "근대해양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거문도에 문화관

광해설사나 연구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문도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염 면장은 "정서적 소외감이 강한 거문도 주민이 자긍심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도록 공직자의 마지막 불꽃을 사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동도와 서도를 잇는 거문교가 개통을 앞두고 면장 취임 이후 첫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거문도 서도와 고도를 잇는 삼호교. 보기 드문 일방통행 다리다. 조만간 거문대교가 개통되면 비로소 동도와 서도, 고도 등 3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된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